

주님과 먹음

Eating with the Lord

요한계시록 3:14-22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2월 5일 성찬식 설교

¹⁴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¹⁵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¹⁶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¹⁷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¹⁸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¹⁹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²⁰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²¹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²²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지근한 삶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보면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고난을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과 더불어 꾸중을 함께 받은 교회가 또 넷 있습니다. 잘 한 일도 있어 칭찬도 받았지만 잘못 한 일도 있어 회개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칭찬은 하나도 못 듣고 꾸중만 들은 교회가 꼭 하나 있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꾸중을 들은 이유를 보니 미지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행위가 미지근하다 하셨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을 세 번이나 거꾸 하셨습니다. 차고 뜨거운 건 온도를 말하는데 어떤 행동이 뜨겁고 어떤 행동이 차가운 겁니까? 우리 말로 “열심”이라는 말 있지요? 마음을 쏟아 최선을 다하는 게 열심인데 이 열 자가 더울 열 자입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롬 12:11)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도 액체가 끓는다, 뜨겁다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덥다”는 말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행위가 뜨겁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걸 말합니다.

차갑다는 말은 그럼 뭘겠습니까? 주님을 전혀 안 섬기는 거니 주님을 모르고 안 믿는 겁니다.

그럼 미지근한 건 뭘입니까? 온도가 있긴 있으니 주님을 알긴 합니다. 섬기긴 섬깁니다. 그런데 뜨겁지는 않으니 마음을 쏟아 붓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님 섬기는 그게 내 삶의 최고 목표가 되고 내 삶 전체가 그 목표를 향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하고 섞여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하고 주님을 안 섬기는 게 반반 섞였기 때문에 미지근합니다. 주님도 섬기고 주님 아는 것, 이를테면 내 희망, 내 계획, 내 탐욕도 섬기니 미지근합니다.

크나큰 착각

그런데 문제는 착각입니다. 미지근하면서도 뜨거운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풍족해 모자라는 게 없다 했습니다. 누가 부자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옛날에는 금이나 은이나 논밭이 많았겠고 지금은 아파트나 주식 같은 게 많겠지요. 부자는 잘 먹어 몸도 튼튼하고 잘 입어 풍채도 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라 말은 하는데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은 풍요하다 그런 경우입니까? 옛 말로 안빈낙도라 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닙니다. 안빈낙도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안빈낙도라는 건 물질은 없어도 마음이 풍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가졌습니다. 물질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건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왜요? 껌데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착각을 한 겁니다. 나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못 가졌습니다. 옷도 못 입어 벌거벗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눈까지 멀었습니다.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는 부자인 줄 압니다.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하고 정반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가진 게 없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부자였습니다. 왜요? 가장 값진 건 갖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값진 보화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셨습니다 (계 2:9).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잡았고 시간도 많고 몸도 건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얼마나 못 가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집 안팎 가득 쌓아놓고 나는 부자다 하는 꼴입니다.

주님의 경고

미지근한 게 어떤 겁니까? 뜨거운 것하고 차가운 것 중간이 미지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 들을 만한 것하고 꾸중 들을 만한 게 섞여야 미지근할 것 같은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꾸중만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지근한 것은 양다리를 걸친 것이요 또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솔직하게 정체를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거라면 아예 차가워지고 믿을 거라면 뜨거워지지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경고를 보면 참 섬뜩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하셨지요? 아무려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차갑게 식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미지근한 상태로는 안 되니까 얼른 뜨거워지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경고도 하십니다. 우리를 음식에 비기고 계십니다. 음식은 날로 먹는 게 아니라면 대개 뜨겁습니다. 불에다 요리를 하나까요. 아니면 차가운 것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먹는 시원한 콩국수 같은 거지요. 미지근한 건 뭘니까? 요리할 땐 뜨거웠다가 식어버린 것이거나 아니면 차갑게 만든 게 온도가 올라가 버린 경우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맛있는 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뜨거운 게 식거나 차가운 데 더워지는 건 둘 다 제 온도를 유지 못 하고 주변 온도와 같아졌다 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미지근하면 입에 대지도 않았을 건데 김 같은 게 납니다. 옆에는 뜨거우니 조심하시오 하고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입에 넣었더니 식었습니다. 뱉어 버립니다. 미지근하게 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경고도 하시고 험박까지 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자식들한테 종종 그렇게 합니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도 하시고 겁도 주십니다. 주님이 지금 일곱 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한다는 말씀은 칭찬 하나 못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하십니다. 다른 교회는 사랑 안 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시지요. 일곱 교회 다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신 까닭은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게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합니다. 식었습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다시 뜨겁게 되어야 되겠는데 주님의 사랑 말고 뭐가 우리를 뜨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도 하고 혼도 내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얼른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삶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주님의 도움을 받는 길뿐입니다. 알거지면서 부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얼른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 정금이지요? 불로 막 연단한 금이라면 뜨거울 겁니다. 그걸 사서 부자가 되라 하십니다. 가짜 보물에 속지 말고 진짜 보물이신 주님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흰 옷을 사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라 하십니다. 화려한 옷 잔뜩 입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요 벌거벗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흰 옷,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벗고서도 못 보는 그 병을 주님에게서 약을 구해 치료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권하시는데 참 자상하게 하십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에도 이렇게 다정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하시는 거기 주님의 끈질긴 사랑이 담겼습니다.

주님 오소서

그 사랑의 절정은 초대 말씀입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초대는 초대인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주님이 밥상을 차려놓고 초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손님이 되어 “나를 초대해 다오”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오라 안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정금이 필요하고, 거룩한 옷도 필요하고, 눈을 열어줄 안약도 필요한데, 우리 주님만 모시면 이게 다 됩니다. 주님 같이 귀한 보배가 우주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으며,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모든 더러운 게 다 없어질 것이

니 마음의 눈도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지요?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던 희미한 삶이 이제는 뜨거운 삶으로, 주님만 섬기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이 변하여 주님이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내 삶이, 내 행위가 변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손님이 되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이 마음이 많이 조급하십니다. 문 밖에 서 계시다 했는데 문 바로 앞에 와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만큼 오셨습니다. 닫힌 마음 문을 주님이 강제로 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 주기를 기다리십니다. 서서 기다리십니다. 밖이니 앉을 곳도 없겠지만 오래 있을 수 없는 자세가 서 있는 자세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나다, 문 좀 열어 다오, 그렇게 애원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먹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먹습니다. 먹으면 살지요? 같이 먹는 건 같이 사는 거지요. 금덩이 챙기고 옷 입고 보는 이게 다 사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주님과 같이 삽니다. 혼자 살던 나,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대단하게 가진 양 자랑하던 나, 별거벗은 줄도 모르고 설치던 나는 없어지고 진짜 보화를 가진 나, 흰 옷을 입은 나, 이제는 눈도 환히 열린 내가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랑 사시니까요. 주님이 내 속에서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로 엮어집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성자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을 때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다 이루면 우리도 주님께서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하십니다.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창세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는 성찬식은 뒤집어진 게 많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하면 주님이 우리를 뺄으실 거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입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성찬식에서는 주님이 우리 음식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우리 손님이 되어 함께 먹겠다 하셨는데 성찬에서는 우리가 손님이 되어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합니다. 이왕 뒤집어진 것 우리 삶도 한 번 뒤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쥐뿔도 없으면서 행세하던 나, 얼마나 더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하던 나, 못 보면서도 다 아는 양 떠들던 나,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욕심을 섬기고 쾌락을 섬겼던 나를 뒤집어 이제는 정말 주님만 섬기는, 정말 열심, 곧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쉽습니다. 주님만 모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음 문을 열고 주 예수를 안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찬은 또 상징적인 행동이 됩니다. 주 예수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우리 몸에 넣음으로써 주 예수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면 함께 먹을 거라 하셨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먹으면서 주님을 모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곧 우리 그리니치 한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미지근한 삶을 회개하고 주님이 기대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삶을 삽시다. 오늘 이 성찬이 주님을 내 안에 확실히 모셔 내 미지근한 삶을 다시 한 번 뒤집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수경 목사)